

한국어 학습자들의 내용 지식과 글쓰기 성취와의 관계*

신윤경** · 최운호***

Abstract

Shin Yoonkyeong · Choi Woonho 2013. 6. 30. **Improved Korean writing depending on the quality of content to write about -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ers.** *Bilingual Research* 52, 243-260. This thesis is to stud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improvement of Korean writing of foreign students and the content knowledge that they write about. The number of foreigners who want to study Korean to achieve their academic purposes has increased. They are very much interested in the content knowledge in writing, which is important for them to achieve their academic objectives. Therefore, it was assessed whether foreigners can improve Korean writing even they write about any content they learned in Korean, or they can improve it only when they write about particular content they carefully choose. For the above, we asked foreign students to see movies and let them write about the movies in Korean to understand how the new knowledge from the movies influenced in the quality of Korean writing. The result shows that the quality of Korean writing is different depending on different subjects of the movies they wrote about. Also, only students fully understood the movies wrote Korean better. This result guides us to develop a strategy to select right content knowledge to deliver to foreign students for better Korean writing education. What's important is not quantity but proven quality of the knowledge. **(Korea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 이 연구는 2007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KRF-2007-411-J03402).

** 제1저자

*** 교신저자

【Key words】 content knowledge(내용 지식), quality of content knowledge(내용 지식의 신뢰성), writing achievement(글쓰기 성취)

1. 머리말

글쓰기를 잘 하려면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공교육 기관에서는 책을 많이 읽으면 글쓰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 매학기 필독 도서 및 권장 도서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외국인 학습자들도 이런 내용 지식들을 많이 습득한다면 글쓰기를 잘 할 수 있는 것일까?

최근, 한국어교육의 글쓰기 관련 연구는 글쓰기 과정을 넘어서 글쓰기 내용 즉, ‘내용 지식’에 관심을 두고 있다. 한국어 학습자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학문목적 학습자들이 증가하면서 글의 내용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의 대부분은 ‘내용 지식의 구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조직하고 글쓰기에 적용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내용 지식 구성’을 생각하기 전에 ‘내용 지식 학습’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 학습자들은 새로운 지식은 모두 학습을 통해야 한다. 심지어 모국어 화자들이 직관이나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들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내용 지식을 어떻게 얼마나 학습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학습하고 습득하는 내용 지식들이 모두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그들이 어떤 내용 지식을 선택하느냐가 글쓰기의 성취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라는 문제제기 및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글쓰기에 사용하는 내용 지식에 따라 글쓰기 성취가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인 학습자들이 학습하고 선택하는 내용 지식에 따라 글쓰기 성취가 달라진다면, 그들을 위한 내용 지식 학습의 방향을 설정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지 많은 양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내용을 선택하여 제공해야 하며, 내용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식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2. 내용 지식과 글쓰기

글쓰기에 필요한 지식으로 Applebee(1982:365)는 ‘언어에 대한 지식’, ‘주체에 대한 지식’, ‘청중에 대한 지식’ 세 가지 유형을 꼽았다. Tribble(1997:67-68)도 글쓰기에 요구되는 지식으로 ‘내용 지식’, ‘맥락 지식’, ‘언어 지식’, ‘쓰기 처리 지식’을 제시했다. ‘주체에 대한 지식’은 ‘내용 지식’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내용 지식’은 글쓰기에 필수적인 지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면 ‘내용 지식’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분석, 서수현(2006:264)은 내용 지식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특정 과제 상황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보, 경험의 총체로서의 지식을 의미한다고 했다. 최은지(2009:45-53)는 내용 지식을 더 세분화 1) 기존 지식 2) 상호텍스트적 지식 3) 지식통합의 지식으로 나누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내용 지식’이 글쓰기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지식 중 하나이며, 필자들이 글쓰기를 위해 동원하는 총체적 지식임을 알 수 있다. 물론 논의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 지식을 글쓰기에 적용시키는 과정 및 전략에 대한 연구가 뒤를 잇는다. 그래서 내용 지식을 글로 전환하는 절차적 지식의 필요성을 언급하거나, 범교과적 글쓰기 혹은 상호텍스트적 지식이라 하여 다른 교과나 참고자료 및 타인과의 상호활동 과정을 통해 얻는 지식을 글쓰기에 활용하는 방안들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필자들이 얻는 내용 지식은 모두 유용한가? 다른 교과나 참고자료 등을 통해 획득한 내용 지식이 모두 글쓰기 성취로 이어지는가? 서

수현(2006:285)은 중상위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내용 지식 이외에 쓰기 전략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면에, 내용 지식의 수준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쓸 거리를 풍성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연구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이다. 그렇다면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도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글쓰기를 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용 지식이 풍성하게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글쓰기 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 문제의 답을 마련하고자 간단한 실험 연구를 실시했다.

3. 연구 내용 및 가설

3.1 내용 지식 제공 자료

먼저, 실험의 기본 설계과정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내용 지식을 제공하고, 그 내용 지식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글쓰기 과제를 제시한다. 그리고 쓰기 과제의 성취도를 점수화 하고, 학습자들이 활용한 내용 지식들의 주제를 분류하고 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핀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용 지식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활용했는가와 글의 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도록 한다.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내용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자료로는 영화를 선택했다. 영화는 영상이 함께 제공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영화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한국 현대사를 반영하고 있는 ‘효자동 이발사’였다.

‘효자동 이발사’라는 영화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 현대 정치사를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블랙코미디 영화이다. 영화 곳곳

에는 그 시대와 사건을 상징하는 장치들이 있으며,¹⁾ 정치가의 입장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일반 소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정치사라는 주제로 한때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다.

한국어교육에서 역사 문화는 문화교육의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이다. 조항록(2004b)은 문화교육 내용으로 ‘언어문화, 비언어적 의사소통, 분야별 문화 요소’로 범주를 나누고 ‘분야별 문화 요소’의 하위 항목으로 ‘역사 문화’를 포함시키고 있다. 민현식(2006)도 11개의 문화교육 범주를 나누고 그 중의 한 범주로 ‘한국의 역사’를 포함시켰다. 따라서 한국의 역사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학습해야 할 중요한 문화 요소이며, 글쓰기와 다른 언어활동을 위해서도 습득해야 할 필수 내용 지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현대사는 현 정치, 사회, 문화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효자동 이발사’ 감상문에서 기대하는 내용은 황영미(2004) 「다원화 시대의 영화 읽기」와 박노자(2008) 「만감일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표 1> 황영미, 박노자의 ‘효자동 이발사’ 감상문 내용

황영미(2004)	박노자(2008)
<p>-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살던 성한모가 이발사로서 대통령과 직접 대면하면서 권력과 역사가 소시민에게 끼친 영향의 한 면모가 조심스럽게 드러난다.</p> <p>- 개인 성한모는 개인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주체의식도 없는 힘없는 민중을 대표하는 하나의 대표물일 뿐이다.</p>	<p>손으로 미동만 해도 소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없애버릴 수 있는 지배자는 근원적으로 무한한 ‘공포’의 대상이다. 서로 연대할 줄 모르고 어떤 반체제적 이데올로기도 보유하지 않은 소부르조아들에게 정권과의 공존은 마치 사자와 한 우리에서 지내는 것과 같다.</p>

1) 탱크에 탄 군인이 청와대를 묻는 모습으로 쿠데타를 상징하며, 북한의 간첩들이 옮겨 왔다는 ‘마르구스’라는 설사병은 ‘마르크스’를 상징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주인공 ‘성한모’는 평범하고 우매한 인물이지만, 아들 ‘낙안’이를 불구로 만든 사건과 기타 여러 사건을 겪으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한다. 그 이면에는 평범하고 우매한 ‘성한모’의 눈을 멀게 하고, 민주주의 성장을 가로 막았던 정치적 인물과 사건들이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영화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감상문을 쓰기 위한 내용 지식을 제대로 습득했다고 가정해 보았다. 그런데 예상 외로 학습자들의 감상문 내용은 다양하게 도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설명하겠다.

3.2 연구 과정 및 가설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수업 시간에 모두 모여서 영화를 함께 관람했으며²⁾ 사전에 어떤 정보도 주지 않았다. 관람 후에 감상문을 써 오도록 과제를 내 주었고, 그것을 평가 분석해 보았다.

과제를 제출한 학생은 총 71명이며, 이들의 국적은 한국(재외국민), 중국, 일본, 대만,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이다. 이들의 글쓰기를 분석한 결과 크게 3부류(A,B,C)로 주제를 나눌 수 있었다. 여기에서 주제는 글쓰기 내용의 주제를 분류했지만, 결국 내용 지식을 분류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왜냐하면 학습자들이 영화를 보고 어떤 내용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글에 반영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영화의 배경이 되는 한국의 정치·역사적 지식을 기존에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유무를 숫자로 표시했다. 숫자 ‘1’은 정치·역사적 지식이 거의 없어서 글에 반영시키지 못한 글, ‘2’는 기존에 정치·역사적 지식을 가지고 글에 반영시키고 있는 글을 의미한다.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2012년 2학기 ‘외국인을 위한 사고와 표현’ 수업을 듣는 외국인 학습자들이었으며, 주로 중급에서 고급까지 5개의 반으로 나뉘어 수업을 듣고 있었다.

<표 2> 글쓰기 과제 주제별 분류

분류		내용	인원수
A: 한국사회라는 거대 사회적 관점에서 주제를 본 경우	A1	한국의 역사 지식에 대해서는 무지에 가깝고, 영화 속 상황을 현재 상황과 비교하여 주제에 접근한 경우	14명
	A2	실제로 당시 한국 역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제를 잘 파악해 낸 경우	9명
B: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본 경우	B1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무지에 가깝고, 영화 속 상황과 무관하게 개인, 부자(父子)관계, 마을에서 보이는 휴머니즘에 집중한 경우	25명
	B2	당시의 한국 역사를 알고 있으나, 개인적, 부자(父子) 관계, 마을 공동체에서 보이는 휴머니즘에 초점을 맞춘 경우	7명
C: A, B가 아닌 나머지 경우	C1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무지에 가깝고, 영화 속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나 역사 비판, 사회 비판, 휴머니즘 어디로도 정확한 해석을 하지 못한 경우	10명
	C2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으나 주제를 역사 비판, 사회 비판, 휴머니즘 어디로도 정확한 해석을 하지 못한 경우	6명

주제별 내용을 예로 들면, 주제 ‘A’는 앞서 설명했던 ‘황영미, 박노자’의 감상 내용과 유사하다. ‘B’ 주제는 그 당시 한국의 정치적 역경 속에서도 아버지의 큰 사랑을 보여준 가족 영화라는 감상평이었다. 즉, 정치적 격변은 단순한 배경으로 언급하고, 장애가 있는 아들을 위해 희생하는 한국의 아버지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3) 마지막 ‘C’의 관점에서 쓴 글은 한국의 사회문제에 대해 이야기하

3) B주제로 쓴 글의 예시를 일부분 들어 보겠다.

- 결론적으로 이 영화를 본 뒤에 부모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다. 부모님을 존경해야 한다는 뜻이다. (인도네시아 국적 학습자)
-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자식들과 평안한 가정을 갖는게

는 영화라는 점은 인지했으나, 단순히 줄거리 설명에 그치거나 코미디 영화라는 점만을 부각시켜 설명하는 것들이었다.

이상과 같이 글의 주제를 분류하고, 이 주제와 글쓰기 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작문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제3자의 한국어교육 전문가에게 의뢰했다.⁴⁾ 평가 기준은 통용되고 있는 여러 작문 평가 기준들을 종합해서 작성했으며,⁵⁾ 그 중에 ‘내용 지식의 정확성’이라는 항목을 추가했다. 이 항목을 넣은 것은 앞서 분류한 주제와 글쓰기 성취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과 더불어, 학습자들이 내용 지식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지하고 글에 반영하고 있는가와 글쓰기 성취도의 상관관계도 살펴보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자에게는 주제별 유형을 제시하지는 않았고, 다만 ‘내용 지식의 정확성’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글에서 내용 지식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는가에 해당되는 것임을 설명, 평가를 의뢰했다. 평가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중국 국적 학습자)

-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다는 말에 익숙한데, 이 말은 성한모의 인생에 응용되지 않는다. 이 이발사는 그동안 착하게 살아왔고, 각하를 충실히 모셨는데도, 청와대에 의해서 아주 큰 불행을 겪게 된다. (한국 국적의 재외국민)
- 4) 제3자의 평가자는 2명이다. 2명 모두 한국어교육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글쓰기 교재 작업에도 참여한 바 있다.
 - 5) 박영목(1999), 조재운(2011) 논문과 연구를 참조, 가장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작문 평가 기준 항목을 작성했다.

<표 3> 글쓰기 평가 항목

내용	내용의 풍부성	5점	55점
	내용 지식의 정확성	5점	
	내용 사이의 연관성	5점	
	사고의 참신성과 창의성	5점	
구성	구조(전체, 문단)의 적절성	5점	
	구성의 통일성	5점	
	구성의 일관성	5점	
표현	어휘 사용의 적절성	5점	
	문장의 다양성 및 적절성	5점	
	효과적 표현	5점	
	맞춤법, 띄어쓰기	5점	

이상과 같이 실험연구를 설계하면서,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감상 문은 ‘A’ 주제의 글이며 성취도 또한 가장 높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A’ 주제 못지않게,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B’ 관점에서 영화를 보고, 그 내용 지식들을 활용해서 글을 작성했다. 그렇다면 ‘B’ 관점에서 글을 작성한 학습자들의 글쓰기 성취도는 어떤 양상을 보일 것인가? ‘A’ 주제의 학습자들과 비슷한 성취도를 보일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이거나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가설은 주제 유형에 따라 성취도와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라는 추측에서 시작한다. 즉, ‘A’ 주제의 관점에서 쓴 글이 내용 지식의 정확성도 높을 것이고, 성취도도 높을 것이라는 가설이다. 왜냐하면 본 연구는 내용 지식을 단순히 많이 알고 활용하는 것보다, 어떤 내용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느냐가 글쓰기에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을 논증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읽기 자료이든 영상 자료이든 새로운 자료를 접하게 되면 중심내용을 찾기 마련이다. 자료에 따라 중심내용을 하나로 쉽게 찾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감상이 필요한 경우 감상자의 개인적 이해 및 시각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감상의 해석이 마음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남호(1990)는 아무리 해석자의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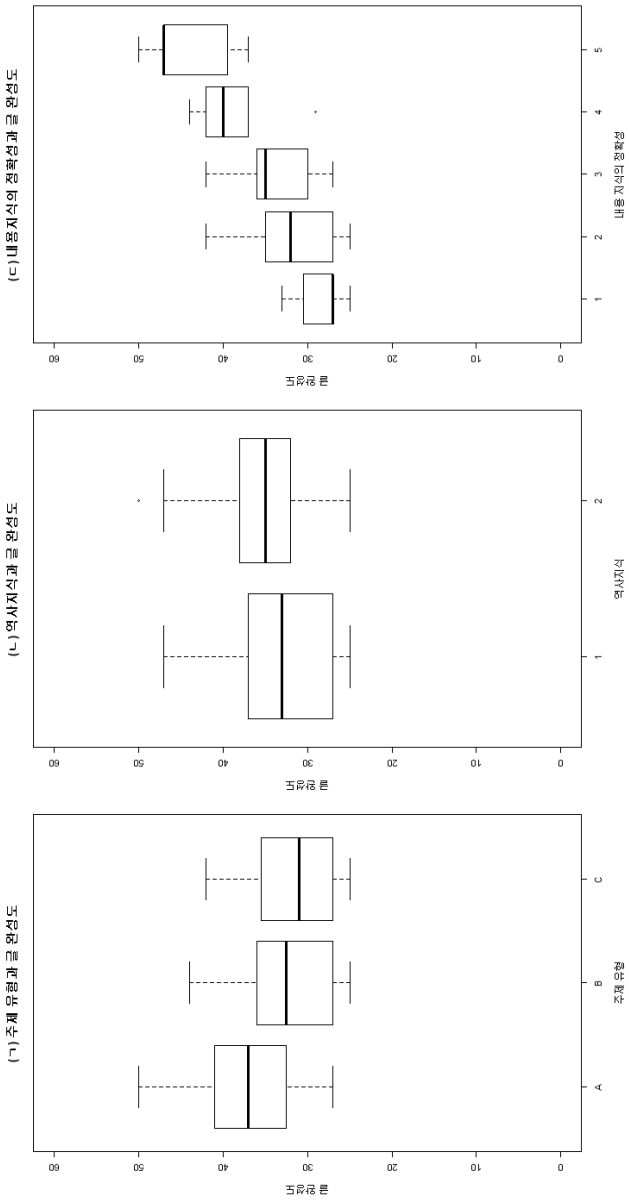
할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해석자 마음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했다. 쌀로써 밥을 지을 수도 있고 떡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지만, 김치를 담글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다. 따라서 해석이 충분히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작품 자체의 이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것은 감상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효자동 이발사’에서 다루는 역사적 설명도 실제 일어난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설명하는 사람의 인식 체계가 반영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설명하는 사람의 인식체계가 실제의 역사적 사실을 충실하게 해석할 수 있을 때 좋은 설명이 가능하다는 이론이다.⁶⁾ 이런 논리를 근거로 자료가 내포하고 있는 내용 지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글쓰기에 적용한 학습자의 글쓰기 성취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연구 절차 및 가설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 결과로 가설의 진위 여부와 그것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4. 연구 결과 분석

먼저 학습자들의 작문 과제를 산술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6) 김한중(1999), 국사수업에 나타난 교사의 설명방식, <사회과학교육연구>3,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학교육연구소, 47쪽-77쪽



<그림 1> ‘주제 유형’, ‘역사 지식’, ‘내용 지식’과 글쓰기 성취도

<그림 1>은 ‘주제 유형’, ‘역사 지식’, 그리고 ‘내용 지식의 정확성’과 ‘글쓰기의 성취도’ 점수의 기초 통계량을 보여주는 상자그림(boxplot)이다. 상자그림은 기초통계량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도식으로 탐색적 데이터 분석(EDA: exploratory Data Analysis)의 기초 데이터 제시 방법 중의 한 가지이다. 상자그림은 분석 데이터의 기초 통계량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변량의 중앙값, 상한값, 하한값, 4분위수, 이상치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도식이다. ‘주제 유형’ A/B/C에 따라서 ‘글 성취도’의 점수를 분류했을 때 A/B/C 각 주제 유형에 따라서 ‘글 성취도’ 점수의 중앙값, 상한/하한의 분포를 보여주는 상자그림 (ㄱ)을 보면, 주제 유형이 A인 글을 쓴 학생의 경우에는 B나 C의 주제유형을 쓴 학생보다 평가 점수가 조금 높은 것으로 관찰된다. 그리고 ‘역사지식’과 ‘글 완성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운데 상자그림 (ㄴ)을 보면, ‘역사지식’의 수준이 ‘2’인 학생, 즉 기존의 한국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있는 학생이 ‘글 성취도’ 점수가 조금 높은 것처럼 보인다. 마지막 (ㄷ)의 ‘내용 지식의 정확성’과 ‘글 성취도’의 관계를 보면, 내용 지식이 1단계에서 5단계로 올라갈수록 글의 성취도 점수도 조금씩 상승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각 변량에 대한 기초 통계량이기 때문에, 각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다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주제 유형’, ‘내용 지식의 정확성’, ‘역사 지식의 유무’와 글쓰기 성취도가 어떤 분포를 보이는지를 Friedman 검정을 이용해서 다시 비교, 분석해 보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Friedman 검정 ($*\alpha = 0.01$ 유의수준)

결과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118.1985	2	*2.2e-16

검정 결과, ‘주제 유형’과, ‘내용 지식의 정확성’, ‘역사 지식의 유무’

그리고 ‘글 성취도’는 균일한 분포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글 성취도’ 점수와 상관관계를 보이는 항목을 알아보기 위해서, ‘글 성취도’ 점수와 ‘주제 유형’, ‘글 성취도’와 ‘내용 지식의 정확성’, ‘글 성취도’와 ‘역사 지식의 유무’ 쌍을 대상으로 추세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추세 분석 방법으로는 Jonckheere-Terpstra 분석을 사용하였다.

먼저, ‘주제 유형’에 따라서 ‘글 완성도’ 평가 점수가 상승하는지에 대한 추세를 검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주제 유형’과 ‘글 완성도’의 추세 (*p < 0.01)

	글 완성도
주제 유형의 수준의 수	3
N	71
JT 통계량	569
유의확률(단측)	*0.0058

<표 5>에 제시된 추세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글쓰기 ‘주제 유형’이 <표 2>에서 제시된 A, B, C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며, C 유형보다는 B유형의 글이, B유형보다는 A유형의 글이 글의 완성도가 더 높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대했던 감상문 주제유형 ‘A’의 글이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즉, 학습자들이 영화 속의 ‘부자 관계’나 ‘휴머니즘’ 관련 내용 지식에 초점을 두고 글을 쓴 것보다 완성도 면에서 더 뛰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꽤 크다. 왜냐하면 이 결과를 통해 학습자들이 ‘얼마나’가 아니라 ‘어떤’ 내용 지식을 습득하느냐가 글쓰기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주제 유형에 따른 글쓰기 성취도 외에, 학습자들이 습득한 내용 지식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지하고 글쓰기에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 보겠다. 즉, ‘내용 지식의 정확성’과 글 성취도와 관련

된 내용이다. ‘내용 지식의 정확성’은 1-5 단계로 등급 수준이 평가되었으며, 1수준에서 5수준으로 상승할수록 내용 지식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지며 그러한 이해가 글쓰기에 반영된 것을 의미한다.

<표 6> ‘내용 지식’과 ‘글 성취도’의 추세 (*p < 0.01)

	글 완성도
내용 지식의 정확성 수준의 수	5
N	71
JT 통계량	1,490
유의확률(단측)	*7.694e-09

<표 6>의 Jonckheere-Terpstra 검정 결과⁷⁾에 따르면, ‘내용 지식의 정확성’에 따라 ‘글 성취도’ 평가 점수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학습자들이 내용 지식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글쓰기에 활용했는지에 따라 평가 점수가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어떤’ 내용 지식을 습득하느냐의 중요성과 함께 얼마나 내용 지식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활용하느냐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역사 지식 유무’에 따른 ‘글 성취도’ 평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7>은 ‘역사 지식’과 ‘글 성취도’의 추세에 대한 검정 결과이다.

<표 7> ‘역사 지식’과 ‘글 성취도’의 추세 (*p < 0.01)

	글 완성도
역사 지식의 수준의 수	2
N	71
JT 통계량	377
유의확률(단측)	*0.1108

7) JT 검정은 R 패키지의 clinfun 라이브러리(Venkatraman, 2013)를 사용했으며, 대립가설은 추세 증가(increasing)를 설정하였다.

검정 결과를 보면, ‘역사 지식의 유무’에 따라서 ‘글 성취도’에 대한 점수의 추세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검정⁸⁾되었다. 이 결과는 기존에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지식의 유무가 글의 완성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기존의 역사 지식 유무는 학습자들이 쓴 글을 통해 한국 역사에 대한 스키마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스키마의 활용 여부와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결과를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역사 지식과 새로 습득한 내용 지식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지는 못 했음을 의미한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외국인 학습자들이 어떤 내용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며, 그것의 정확성 정도에 따라 글쓰기 성취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주제 유형’이나 ‘내용 지식의 정확성’은 ‘글 성취도’의 평가 점수와 관련이 있음이 드러났고, ‘역사 지식’과는 큰 상관성이 없음으로 밝혀졌다. 즉, ‘효자동 이발사’라는 영화에서 ‘한국의 정치사’ 내용 지식을 활용하고 반영한 주제 유형의 글이, ‘아버지의 사랑’이나 ‘휴머니즘’ 주제 유형의 글보다 평가 결과가 좋았다는 것이다. 영화에서 단편적으로 쉽게 추출해낼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나 ‘휴머니즘’이라는 주제가 적절한지의 여부가 글쓰기 평가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이나 ‘휴머니즘’이 영화 내용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인 주제는 아니다. 이 주제는 ‘효자동 이발사’라는 영화의 본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또 다른 소주제인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영화 속에서 본질적인 주

8) ‘역사 지식’ 유무에 따른 ‘글 완성도’ 점수에 대한 T-검정을 수행해도, ‘역사 지식’에 따른 ‘글 완성도’ 점수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t=1.48985$, $p(T \leq t)$ 단측: 0.072741)

제를 찾아 인식하고 글쓰기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글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 지식이 얼마나 정확한지가 글의 완성도와 상관성이 있었다는 점도 의의가 있다. 평가자는 글의 주제 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고, 내용 지식의 정확성을 평가했다. 즉, 글 안에서 필자들이 얼마나 내용 지식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글에 반영하고 있는지 별도의 항목으로 체크했다. 따라서 어떤 주제 유형이냐에 상관없이 필자가 내용 지식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주제 유형별 글쓰기 성취도와와의 상관성 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본질적인 주제를 인식한 글이 내용 지식을 정확하게 인식한 글일 것이며, 내용 지식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에 대한 자신감은 글의 완성도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 앞으로 교육 방향을 설정해 볼 수 있다.

첫째, 외국인 학습자들이 여러 경로와 방법을 통해 학습하고 습득하게 될 내용 지식은 ‘양’보다는 ‘어떤’ 내용 지식을 어떻게 학습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점이다. 여기에서 ‘어떤’이라는 의미는 내용 지식의 ‘질’을 의미하는 것이며, ‘질’이라 함은 ‘정확성’ 내지 ‘신뢰성’을 의미한다. 즉, 양질의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내용 지식들을 학습하는 것이 글쓰기에 도움이 되며, 더 나아가 다른 언어 영역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그 결과에도 좋은 영향을 주리라는 것이다.

둘째, 그렇다면 실제 교육에는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가? 교사는 내용 지식을 담고 있는 자료들의 질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 즉, 자료에 담겨 있는 내용 지식들이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것들인지, 옳고 바른 가치관과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검증을 거치고 제공해야 한다. 또한, 여러 내용 지식들이 혼재되어 있다면 그것들 중에서 선별하고 선택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글쓰기에 있어 내용 지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내용 지식의 구

성 및 활용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내용 지식 자체의 중요성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좋은 재료가 좋은 결과물들을 산출해 내는 당연한 진리가, 내용 지식의 질과 글쓰기의 성취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교육 방향을 설정할 때이다.

<참고 문헌>

- 김정숙(2009), 내용 지식 구성을 위한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20-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3쪽-44쪽
- 김한중(1999), 국사수업에 나타난 교사의 설명방식, <사회과학교육연구> 3,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학교육 연구소, 47쪽-77쪽
- 민현식(2006),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의 방향과 방법, <한국언어문화학> 3-2, 국제한국어언어문화학회, 137쪽-180쪽
- 박노자(2008), 박노자의 만감일기, 인물과사상사
- 박선희(2006), 영화를 활용한 고급반 프로젝트 수업, <이중언어학> 30, 이중언어학회, 179쪽-207쪽
- 박수자(2002), 지식과 창의성의 맥락에서 본 쓰기 유형 개발, <이중언어학> 20, 이중언어학회, 111쪽-129쪽
- 박영목(1999), 작문 능력 평가 방법과 절차, <국어교육> 99,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쪽-29쪽
- 방종현(2009), 쓰기에서 내용 지식이 글의 질과 글의 길이에 미치는 영향 연구-중학생의 설명적 글쓰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수현(2006), 글쓰기에서의 내용 지식에 대한 개념 규정, <국어교육> 121,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07쪽-128쪽
- 서수현, 이병승(2009), 내용 지식과 쓰기 성취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39,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61쪽-291쪽
- 이남호(1990), 문학의 위족-이남호 평론집 1, 민음사
- 전미화(2012), 한국어 학습자의 보고서 쓰기 위한 내용 지식 구성 방안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재윤(2011), 작문 평가의 도구와 방법 개선 방향 설정, <작문연구> 13, 한국작문학회, 191쪽-224쪽
- 조향록(2004b), 한국어 문화교육론의 내용 구성 시론, <한국언어문화학>1-2, 국

제 한국언어문화학회, 199쪽-219쪽

최은지(2009), 사회구성주의에 기반한 학문 목적 한국어 작문 교육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최은지(2012). 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의 담화통합 쓰기 양산, <이중언어학> 49, 이중언어학회, 381쪽-410쪽

황영미(2004), 다원화 시대의 영화 읽기, 예림기획

Applebee, A.N. (1982), *Writing and learning in school settings*. In Martin Nystrand(ed), *What Writers know: The language, process, and structure of written discourse*. NY: Academic Press, p365

Tribble, C. (1997), *Language Teaching: Writing*, Oxford University Press, pp 67-68

Venkatraman E. Seshan (2013), *clinfun: Clinical Trial Design and Data Analysis Functions*, available at <http://CRAN.R-project.org/package=clinfun>

신윤경(Shin Yoonkyeong)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전화번호: 010-8252-6053

전자우편: ykshin1905@hanmail.net

최운호(Choi Woonho)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152-906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83-3 우방빌라 203호

전화번호: 010-3245-8062

전자우편: woonho_choi@nate.com

투고일자: 2013. 4. 20

심사(수정)일자: 2013. 6. 10

게재결정: 2013. 6. 20